

지역 소식 통

부안군, 내년도 상수도
전환사업 신규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전북 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6년도 상수도분야 전환사업(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신규 선정돼 총사업비 6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2026년도내 상수도분야 신규사업 중 최대 규모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위도면 식도 급수구역으로 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에 걸쳐 위도에서 식도 일원 약 1.5km 해역의 해저 지층에 상수도관을 압입해 매설할 계획이다.

식도 일원은 위도정수장에서 생산된 상수도를 해저 지표에 설치된 배수관로를 통해 공급받아 왔으나 어선 조업 활동과 조류 등의 영향으로 잦은 파손이 발생해 그때마다 단수·제한 급수 등으로 식도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고초를 겪는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해저 지층에 매설된 신설 배수관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게 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예상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광민 박사, 13일

정읍시 '마음 건강' 특강

정읍시는 오는 13일 저녁 7시 연지 아트홀에서 제119회 단풍아카데미를 개최한다. 10월 시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이광민 박사를 초청해 현대인의 마음 건강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법과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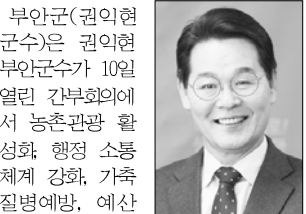
특히 서울대 의학박사이자 정신건강의학과 마인드랩 공간병원장인 이광민 박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 박사는 일상 속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회복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시민들의 마음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형 체류 관광코스 발굴해야”

권익현 부안군수, 예산 집행 절차·행정 신뢰 강화 등 당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1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농촌관광 활성화, 행정 소통 체계 강화, 가축 질병예방, 예산 집행 철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권익현 군수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국민의 43.8%가 농촌관광을 경험하고 있으며 숙박형 체류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농가 민박과 로컬 맛집을 연계한 ‘부안형 체류형 관광코

스’를 적극 발굴해 체류형 농촌관광 선도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법령·지침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각 부서는 제도 개정이나 신규 정책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과 읍·면에 신속히 공유하고 공문수신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 관리와 대의 안내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권 군수는 “행정의 신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에서 비롯된다”며, 행정소통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겨울철을 앞두고 “기온 급강하로 가축 질병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축사 내 환기·보온 상태와 전기·난방기기 안전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취약농가 중심의 현장지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신속한 정보전달과 가축재해보험 확대, 비상 연락망 점검을 통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권 군수는 “연말은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시기로, 각 부서는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불필요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연초 계획한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수확기 잦은 강우 등 농가 어려움 위로

권익현 부안군수,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 방문 농가 격려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0일 하서면 대교농협 창고에서 진행 중인 2025년 산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을 방문해 농가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사무소장 하서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검사원과 농가의 노고를 위로하고 수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권익현 군수는 “올해는 수확기 잦은 강우와 개시무늬병 발생 등으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신 농업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관들께서도 공정한 검사를 통해 농가가 조금이라도 보탬을 받



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달라”며 “수매장에서는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다.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건조해 공공비축미 수매를 지난 6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며 올해 총 1만 355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제12회 고창청소년문화축제 성료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청소년문화센터가 주관한 ‘제12회 고창청소년문화축제’가 지난 8일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역 청소년과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으로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올해는 드론 축구를 활용한 이색적인 개막식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모범청소년 표창식이 진행돼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무대 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교부와 중·고등부가 참여한 꿈·키움 페스티벌과 ‘행복·키움 페스티벌’이 각각 열려, 청소년들이 갈고닦은 끼와 재능을 펼치며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또한 청소년 자치기구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부스가 축제현장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청소년 2



명이 사회자로 선발돼 행사 전체를 진행하는 등 청소년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강조됐다.

이밖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고창교육지원청 Wee센터, 고창방과후아카데미, 고창문화관광재단, 청년정책협의체, 카페 ‘잇고 있다.’ 등이 참여한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민생경제 회복전략… 지역 활력 이끌어

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상’ 수상받아

정읍시가 지난 7일 광명시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년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널리 알리고 지자체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해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미경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주요 인사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읍시가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회복 전략’은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질감



한 예산을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환원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시민 중심의 재정정책 추진과 위기 대응형 경제 활성화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수상은 정읍시가 추진해온 민생경제 회복 전략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정읍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샘골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도지사 인증’ 획득… 신뢰도 ‘UP’

정읍 샘골농협동조합 로컬푸드 직매장(대표 허수종)이 지난 5일 2025년 도지사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됐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인증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신뢰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샘골농협은 향후 2년간 인증사업장 자격을 유지한다.

도지사 인증 직매장 지정 제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원칙과 인증 기준을 준수하는 매장을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생산자의 판로 확보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된 사

업장은 유효기간 2년 동안 도지사 명의의 지정서와 지정명판을 교부받는다. 또한, 도 자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재신청을 통해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샘골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모니터링단으로부터 불시 점검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출하 농산물에 대한 무작위 잔류농약검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더욱 높여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흥덕면 노동마을, ‘마을만들기’ 준공식

고창군 흥덕면 노동마을이 마을화관 리모델링 등 마을만들기 사업 준공식을 지난 8일 열었다.

노동마을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원상화)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김만기·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과 최인규 고창군의회 군의원 등 지역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흥덕면 노동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3~2025년에 걸쳐 총 사업비 5억원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건강쉼터 조성 △건강프로그램 △마을 안



길 가꾸기 등 지역여건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됐다.

특히 노후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쉼터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